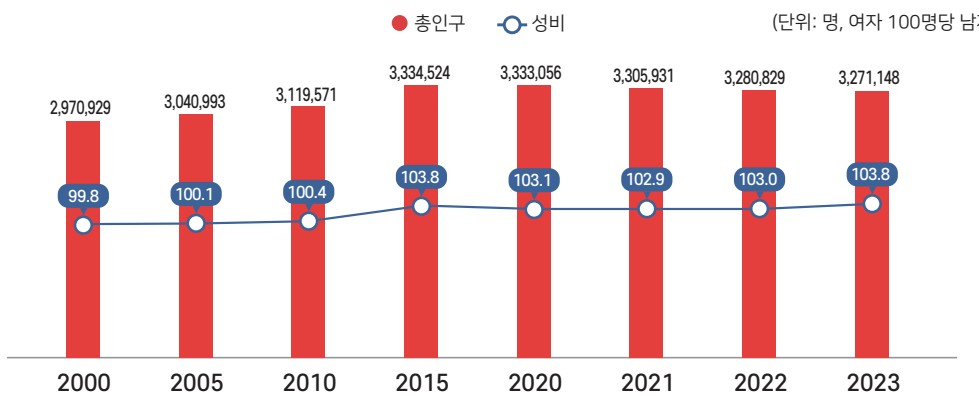
1.
인구 및 가족

1. 인구 및 가족

인구

경상남도 인구는 '15년 333.4만명을 기점으로 감소, 성비는 증가

성별 인구추이(2000~2023)



자료 : 통계청.「인구총조사」. KOSIS. <표 1-1>

18개 시군별 총인구 성비(2023)

(단위: 명,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)



자료 : 통계청.「인구총조사」. KOSIS. <표 1-1>

■ '23년 총인구는 3,271,148명으로 2015년 대비 1.9% 감소함

■ '00년은 전체 인구 중 50.0%가 여성이었으나, '23년에는 49.1%로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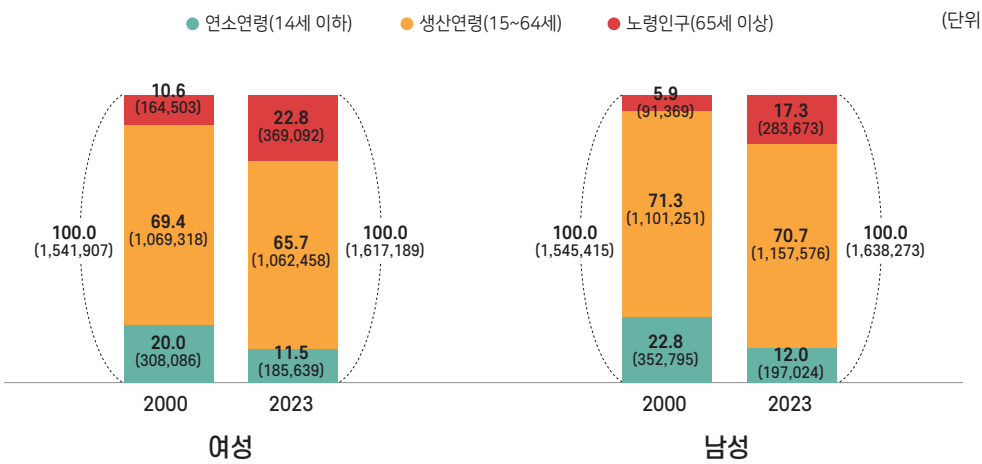
■ '23년 18개 시군별 총인구 성비는 거제시가 116.5로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매우 많은 지역이고 함양군은 94.3으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은 지역임

1. 인구 및 가족

인구

'23년 경상남도 생산연령 인구 감소, 노령인구 증가, 특히 여성 생산연령 인구 감소 속도 빠름

연령3계층별 인구구성(2000, 2023)



자료 : 통계청.「장래인구추계」. 중위추계기준, KOSIS. <표 1-3>

경상남도 인구는 향후 30년간 22.2% 감소할 것으로 추정

장래인구추계(2020, 205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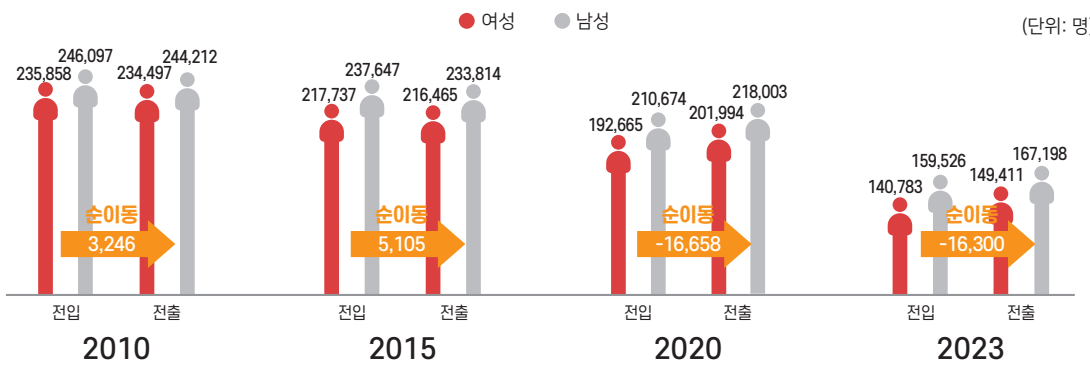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.「장래인구추계」. 중위추계기준, KOSIS. <표 1-2>

- '00년 성별 총인구 중 생산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 69.4%, 남성 71.3%로 남녀간 1.9% 차이 남
- '23년 성별 총인구 중 생산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 65.7%, 남성 70.7%로 남녀간 차이가 5.0%로 증가함
- 한편, 연소연령은 '00년 여성 20.0%, 남성 22.8%에서 2023년 11.5%, 12.0%로 감소하였고, 노령인구는 '00년 여성 10.6%, 남성 5.9%에서 2023년 각각 22.8%, 17.3%로 증가함
- 경상남도 장래인구는 '20년 3,340,211명에서 '52년 2,597,078명으로 743,133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'20년 대비 22.2% 감소한 것임

인구이동

경상남도 인구유출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으며, 특히 여성 인구유출이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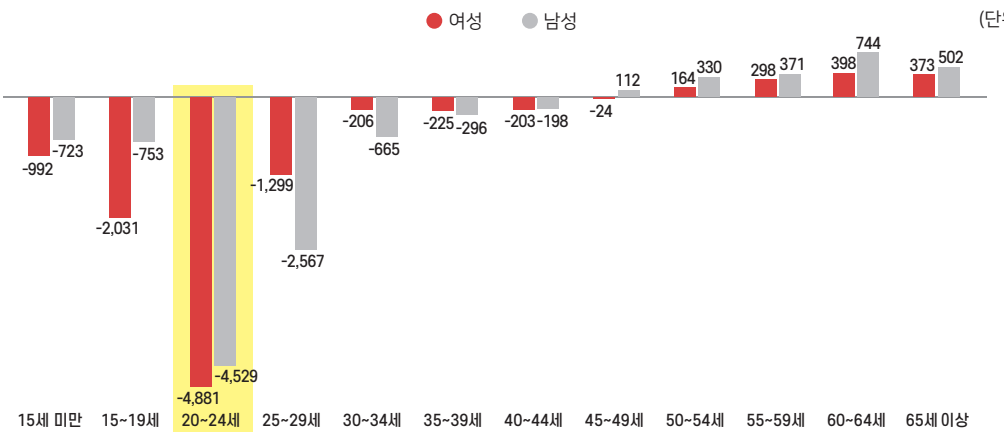
성별 인구이동(2010~2023)



자료 : 통계청.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. KOSIS. <표 1-6>

여성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, 그리고 남성은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지역을 가장 많이 떠남

성별 및 연령별 인구이동(2023)



자료 : 통계청.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. KOSIS. <표 1-7>

■ '20년 순유출 인구 16,658명 중 여성은 9.329명으로 56.0%를 차지하고 남성은 7,329명으로 44.0%를 차지함

■ '23년 유출인구는 총 16,300명으로 이 중 여성이 8,628명으로 52.9%를 차지하고 남성은 47.1%(7,672명)임

■ '23년 여성의 인구유출은 20대 초반이 4,881명(56.6%)으로 가장 많고, 이어 10대 후반이 2,031명 (23.5%)으로 가장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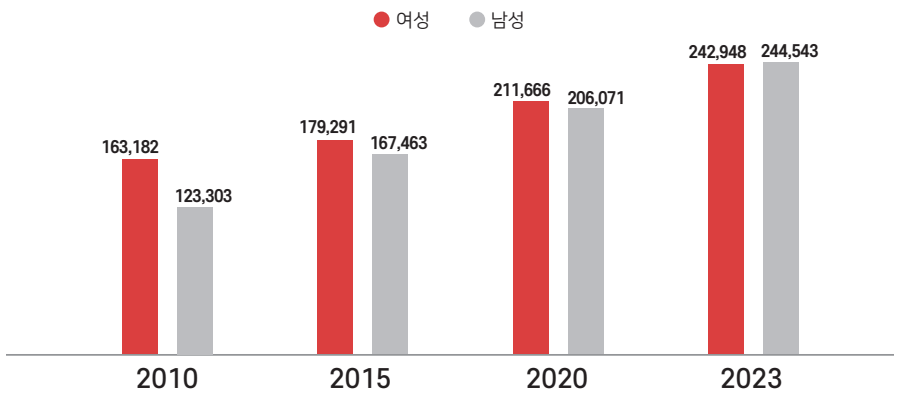
■ '23년 남성의 인구유출 또한 20대 초반이 4,529명(59.0%)으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는 20대 후반이 2,567명 (33.5%)으로 가장 많음

1. 인구 및 가족

1인 가구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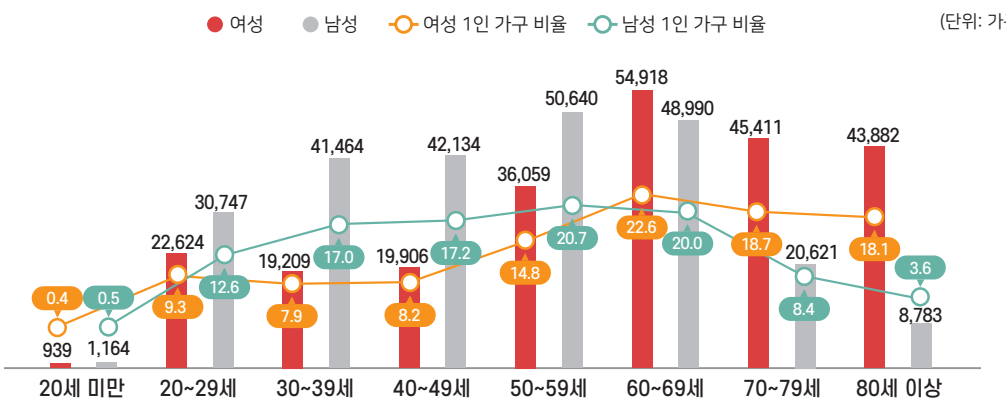
여성은 노년층, 남성은 중장년층에서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음

1인 가구 분포(2010~2023)



자료 : 통계청.「인구총조사」. KOSIS. <표 1-25>

연령별 1인 가구 분포(2023)



자료 : 통계청.「인구총조사」. KOSIS. <표 1-25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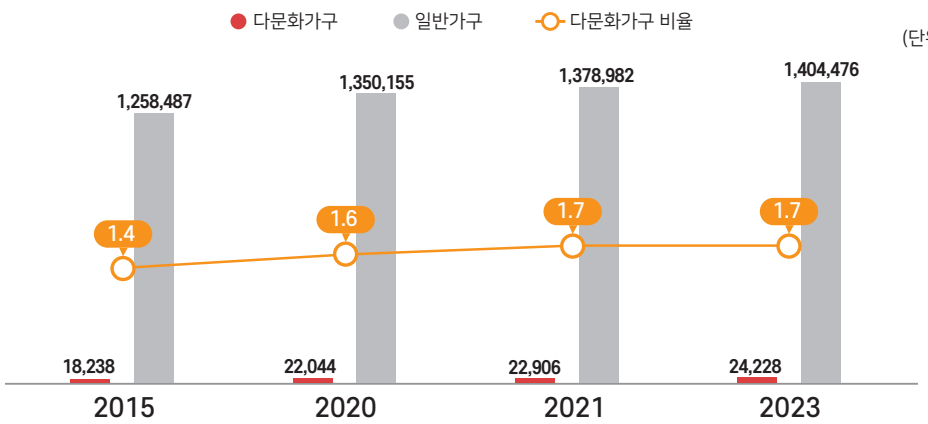
■ 연령별 1인 가구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, 여성은 60대에서의 1인 가구 비율이 22.6%로 가장 높고, 남성은 50대가 20.7%로 가장 높음

■ 한편, 80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1인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, 전체 여성 1인 가구 중 18.1%가 80세 이상으로 나타났으나, 남성은 3.6%에 불과함

다문화 가구 분포

전체 가구 중 다문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증가

다문화 가구 분포 변화(2015~2023)



자료 : 통계청.「인구총조사」. KOSIS. <표 1-28>

시군별 다문화 가구 비율(2023)



자료 : 통계청.「인구총조사」. KOSIS. <표 1-28>

■ '15년 일반 가구 중 다문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.4%로 이는 '20년에 1.6%로 증가하였고, '23년에는 1.7%로 증가 추세에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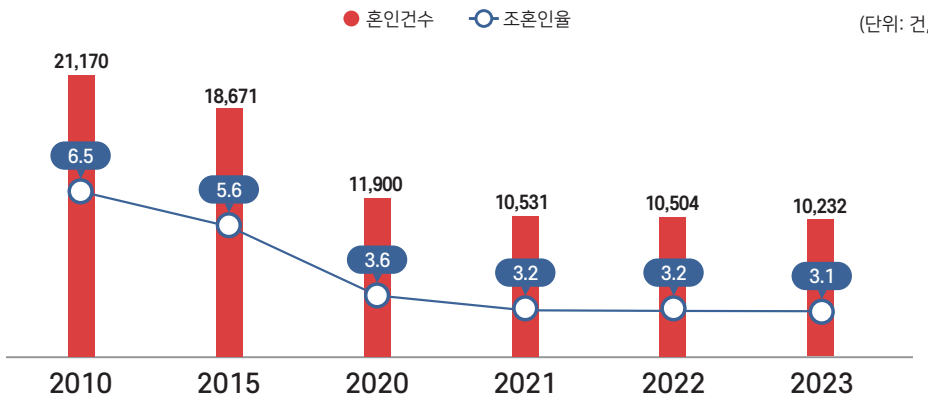
■ 다문화 가구 비중은 시군별 차이를 보이는데, 시 단위에서는 김해시가 2.0%로 다문화 가구 비율이 가장 높고, 창원시가 1.4%로 가장 낮음. 한편, 군 단위에서는 함안군이 2.6%로 가장 높고, 남해군이 1.5%로 가장 낮음

1. 인구 및 가족

혼인과 출생

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2010년 이후로 지속적 감소

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변화(2010~2023)



자료: 통계청.「인구동향조사」. KOSIS. <표 1-29>
주: 조혼인율=1년간의 총혼인건수/당해연도의 연앙인구 x 1000

시군별 조혼인율(2023)



자료: 통계청.「인구동향조사」. KOSIS. <표 1-29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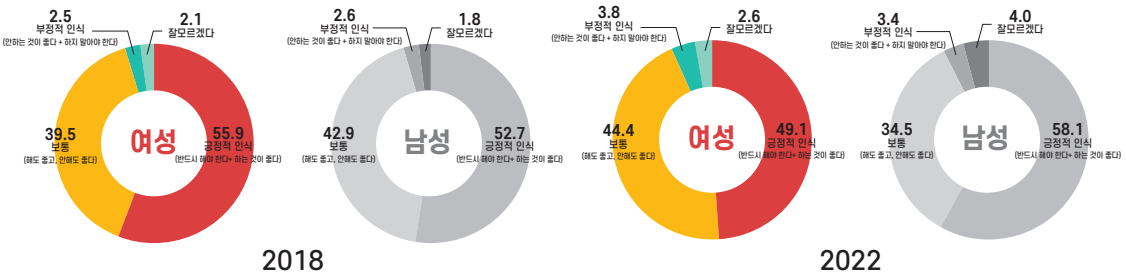
■ '10년 혼인건수는 21,170건이었으나 '23년에는 10,232건으로 '10년 대비 51.7% 감소하였고, 조혼인율은 6.5건에서 3.1건으로 52.4% 감소함

■ 지역별 조혼인율을 살펴보면, 사천시와 양산시가 3.7건으로 18개 시군 중 조혼인율이 가장 높고, 의령군이 1.7건으로 가장 낮음

여성보다 남성이 혼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

혼인에 대한 견해(2018, 2022)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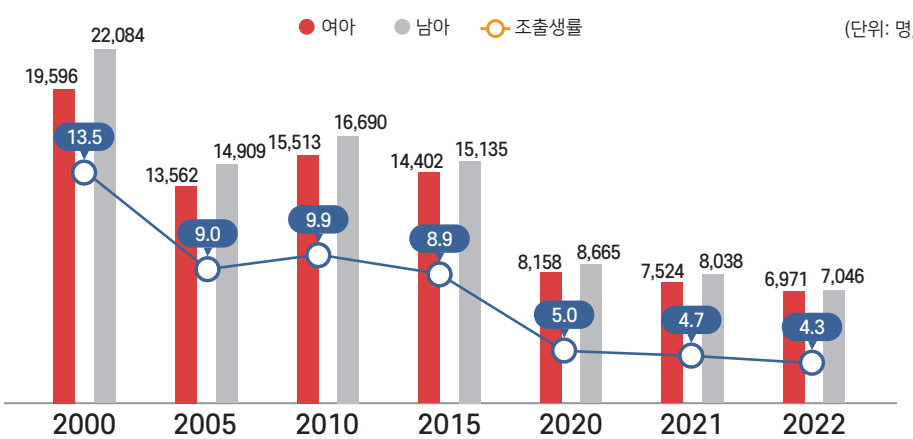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.「사회조사」. KOSIS. <표 1-35>

경남의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은 지난 20여년간 74% 가까이 감소

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변화(2000~2022)

(단위: 명, 천명당 명)



자료: 통계청.「인구동향조사」. KOSIS. <표 1-17>
주: 조출생률 = 1년간 총 출생아수/당해연도의 연앙인구 x 1,000

■ 성별로 살펴보면,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여성은 꾸준히 감소하고 남성은 증가해서 성별 차이가 나타남

■ 경남의 출생아 수는 '00년 41,680명에서 '22년 14,017명으로 '00년 대비 7,663명(76.4%)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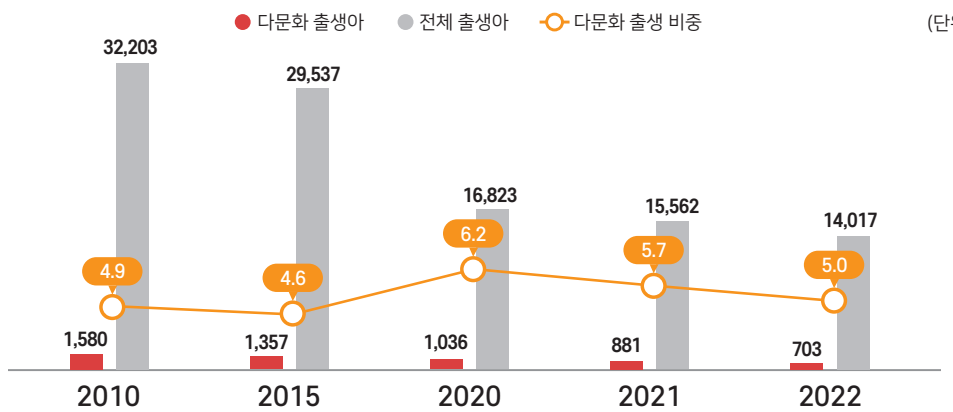
■ 경남의 조출생률은 '00년 13.5명에서 '22년 4.3명으로 '00년 대비 9.2명(68.1%) 감소함

1. 인구 및 가족

다문화 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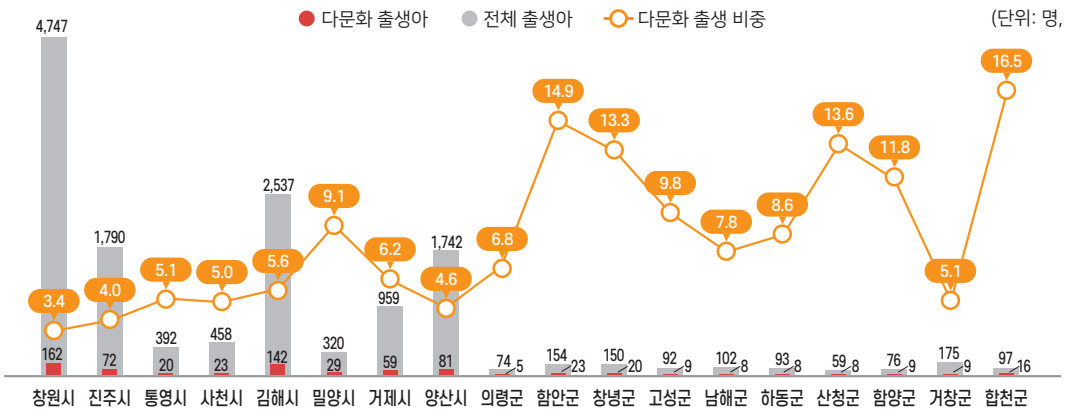
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% 내외

다문화 출생(2010~2022)



자료 : 통계청.「인구동향조사」. KOSIS. <표 1-18>

시군별 다문화 출생(2022)



자료 : 통계청.「인구동향조사」. KOSIS. <표 1-18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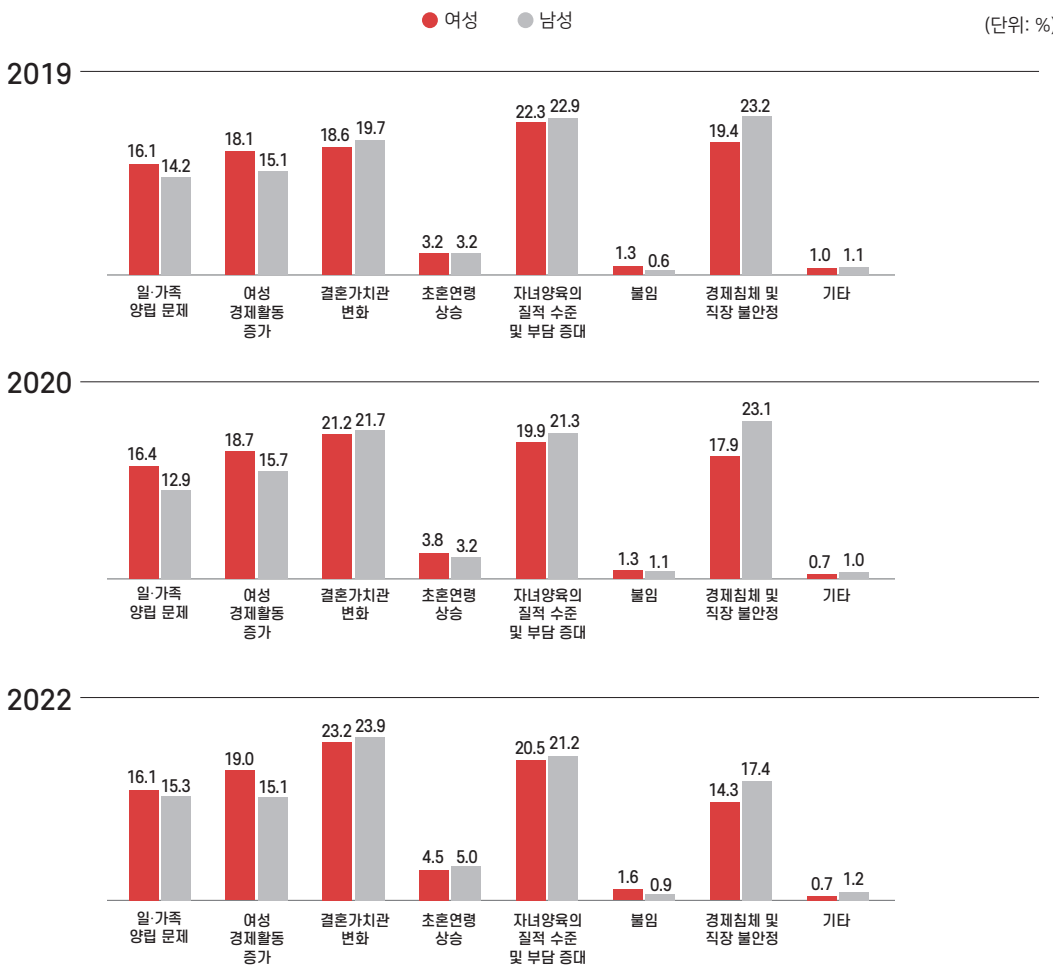
■ '10년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4.9%로 '22년 5.0%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

■ 한편, 경남의 다문화 출생은 18개 시군별 차이를 보임. 시지역은 밀양시가 9.1%로 다문화 출생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창원시가 3.4%로 가장 낮음. 군 단위에서는 합천군이 16.5%로 가장 높고 거창군이 5.1%로 가장 낮음

저출산의 주된 이유

여성은 경제활동 증가, 남성은 경제적 불안정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식

저출산 원인에 관한 인식 변화(2019~2022)



자료 : 경상남도. 「경상남도사회조사」. 경상남도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. <표 1-37>

■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'결혼 가치관 변화', '초혼연령 상승', '자녀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 증대', '불임'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인식 차이가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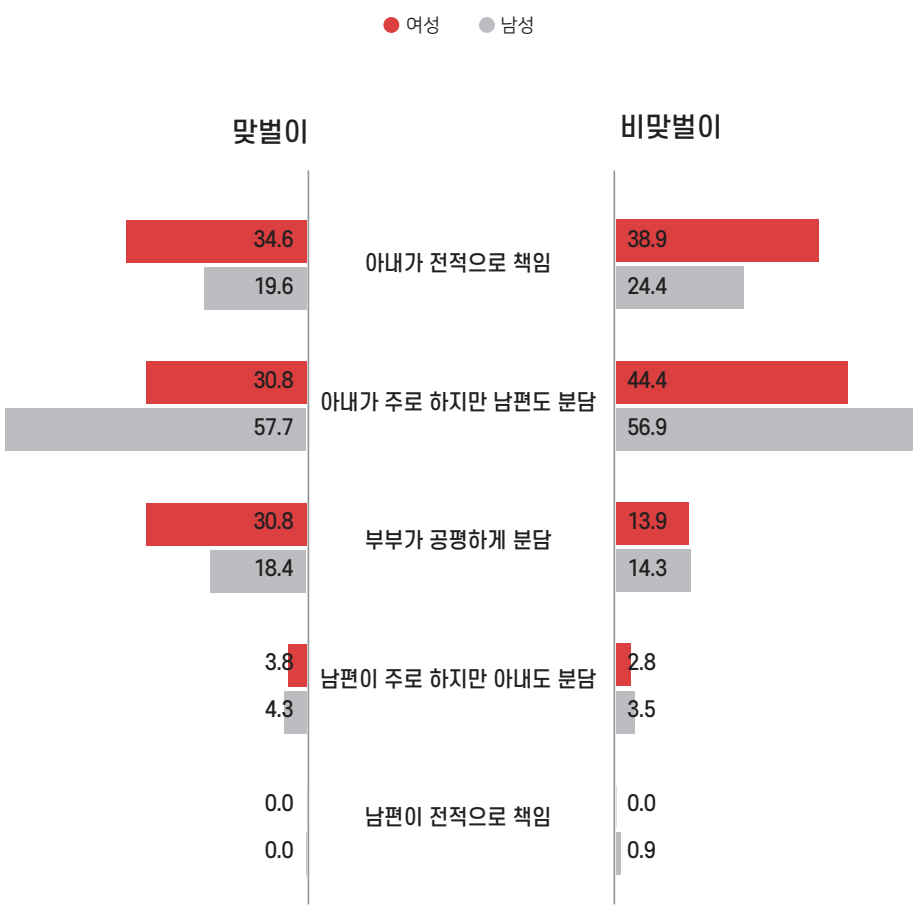
■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'여성의 경제활동 증가', 그리고 남성은 여성보다 '경제침체 및 직장 불안정 성'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별 차이가 확인됨

1. 인구 및 가족

가사 분담 실태

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인식

맞벌이 여부에 따른 가사 분담 실태(2022)



자료 : 통계청.「사회조사」. KOSIS. <표 1-41>

■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의 책임은 주로 여성에게 있다고 인식했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이 더 큼

■ 맞벌이의 경우 여성의 30.8%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인식해 남성(18.4%)보다 12.4%p 더 큼